



통일부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 평가와 전망

: 조선중앙TV 방영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강민정
단국대학교

제1장 서론	1
제2장 북한의 주요 청년정책	8
제3장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과 조선중앙TV	14
제4장 결론	45
[참고문헌]	50

표 목차

<표 1> 김정일 시대 조선중앙TV 보도 편집물 편성 현황	17
<표 2> (1)김정은 후계자 시기(2009-2011)	19
<표 3> (2)김정은 지도자 등극 시기(2012-2014)	20
<표 4> (3)김정은 체제 안정화 추구 시기(2015-2016.10 최근까지) ...	22
<표 5>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청년 형상이 담긴 서사 창작물	29
<표 6>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청년 형상 TV드라마 속 주인공의 청년 여부	36

그림 목차

<그림 1> 조선중앙TV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세부장르	7
<그림 2> 참관기와 련속참관기 비교	21
<그림 3> <청년강국의 주인공답게 -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_2016. 2.7 방송	23
<그림 4> 청년동맹을 다룬 보도 편집물의 연도별 방송 편수	24
<그림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_2016. 8.29.방송	25
<그림 6> 백두와 청년의 결합어를 사용한 보도 편집물의 연도별 방송 편수(기간: 2009-2016)	25

<그림 7>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대한 보도 편집물의 예	25
<그림 8> 청년강국 보도 편집물의 방송 편수(기간: 2009-2016)	26
<그림 9> 청년강국 관련 보도 편집물의 예	26
<그림 10>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는 조선중앙TV 보도 편집물의 장면	28
<그림 11> 장시	30
<그림 12>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일부	30
<그림 13> 시 편집물	30
<그림 14> 돌격대원들의 시 일부	30
<그림 15> 공연녹화본 : 경희극 <사랑>, 2012년 TV방영	31
<그림 16> 공연녹화본 : 경희극 <향기>, 2015년 TV방영	31
<그림 17> 공연녹화본 : 경희극 <백두의 청춘들>, 2016년 作	31
<그림 18> 배경 : 평양민속공원_경희극 <사랑>	32
<그림 19> 배경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현장_경희극 <백두의 청춘들>	32
<그림 20>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영사기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됨 _경희극 <향기>	33
<그림 21> 악조건에서도 그물을 해체하는 선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줌_경희극 <향기>	33
<그림 22> 부모의 반대로 개인 간의 ‘사랑’이 먼저인지 당의 ‘일’이 먼저인지 기로에 선 옥실과 광남 _경희극 <사랑>	34
<그림 23> 선기와 혜연이 수산열풍에 동참한다고 결혼을 미루기로 결심하고 선기의 누이에게 다리가 다쳐 결혼을 늦추겠다고 말하는 장면_경희극 <향기>	34
<그림 24> 발전소 건립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결혼식을 당에서 올려주겠다고 해도 미루고 일에 매진하려는 연인들의 모습 _경희극 <백두의 청춘들>	34
<그림 25> TV드라마 <기다리는 아버지>	37
<그림 26> 주인공 아동과 달리 보조인물로 그려지는 선생님 (청년)	37
<그림 27> 주인공 아동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복무하는 주인공의	

부모(청년)	38
<그림 28> TV드라마 <소년탐구자들>	38
<그림 29> 청년 발명 음파탐지기의 작동 모습	38
<그림 30> 음파탐지기 통해 복원된 무명의 항일전사 목소리	39
<그림 31> TV드라마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39
<그림 32> 보다 진취적인 청년으로 등장하는 선생 선행의 모습	39
<그림 33> 개인의 지적 능력을 공적자산이기보다 사적자산이라고 이해하는 용남어머니	39
<그림 34> TV드라마 <표창>	40
<그림 35> 사적 욕망을 결심하는 강리창	40
<그림 36> 강리창 표창을 수여받는 장면	40
<그림 37> TV드라마 <귀중히 여기라>	42
<그림 38> 남 주인공	42
<그림 39> 남녀 주인공의 평양에서의 만남	42
<그림 40> <표창>의 핸드폰 사용하여 연애하는 남녀의 모습	43

요 약 문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청년 강국’을 내세워 ‘청년중시사상’을 연일 강조하며, 공식 TV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집중 제작하고 다수 방영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살피고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여 김정은 정권이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청년중시사상 및 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보도하며 청년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 연설을 통해 “청년강국의 위용”을 강조하며, 청년절 경축 행사를 확대하였고 김정일 집권기였던 199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청년동맹 대회를 23년만에 다시 개최하며 청년동맹 대회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치행보가 시시각각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김정은 정권이 활발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청년중시사상 및 정책을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시대의 청년을 다룬 프로그램들을 살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청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통해 실제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 관련 프로그램 방영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와 ‘서사’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최근 증가한 청년정책 관련 보도 및 청년 담론에 기여하는 서사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 강조 현상이 첫째,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둘째,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포섭하여 노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셋째, 청년 이상화를 주입하여 북한 사회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의 사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김정일 사후 정권 교체 시기부터 지도자의 젊은 나이에서 이미 태생적으로 ‘청년’이 지닌 ‘젊음’의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이에 정권 교체 직후 김정은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전유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젊고 친근

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청년 동맹 출신을 당의 핵심 지도부에 임명하며 북한 지도 세력의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추구한 '젊음'의 이미지는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정권으로의 이행 시 필요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정책 강조와 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 현상이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교체 직후 시기적으로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명목 및 인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권 교체의 불안정성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문명국 건설'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건설 분야의 성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로 생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청년'의 호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이 노동에 임하는 순수하고 저돌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대량 동원 되어야 하는 노동력의 원천으로의 청년 호명은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양적으로 늘어난 건설 현장에 비례한다고도 보인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는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포섭하여 노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물론 김정은 시대의 건설 사업 분야의 가시적 성과는 대내외 선전용 이미지의 변화 즉 현상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김정일 시대와 다른 시각적 환경을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고층 건물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및 다양한 문화유통 시설의 등장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공간적 이미지에 노출된 청년들은 문명국으로 가시화된 스펙터클의 표상을 살아가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삶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보여준 건물의 대형화 다양한 문화향유시설의 등장 등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현재 북한의 청년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IT 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래문화 불법 유입의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내부 경제 순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장마당의 형성으로 읍지에서 사적 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영역마저 점점 늘어나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이전 세대와 다른 지점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은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력인 동시에 체제 이탈의 불안정한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다소 위험한 존재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급력이 높은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최근 ‘청년강국’을 내세우며 청년중시사상을 연일 강조하는 전략은 청년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TV에 ‘청년중시사상’을 강조하는 현상과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이상화한 ‘청년’모델의 지속적인 노출은, 김정은 정권이 창조한 세대 전형을 제공하려는 정치적 기획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적 변화에 자연스럽게 새롭게 형성되는 청년 세대의 특징이 대개 사회계층의 분화의 조짐에서 비롯된 사적 욕망의 발현으로 이어지고 김정은 정권은 이를 지연하고 막으면서 이러한 대응이 자신의 정권에 알맞은 세대 전형을 창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를 TV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공식화한다.

이렇듯 조선중앙TV를 통해 강조된 ‘청년중시사상과 청년정책’을 통해 드러난 청년 이상화는 현재 북한의 청년세대에 배태된 사적 욕망을 공적 윤리로 포섭해야겠다는 정치적 강박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청년 세대의 현실 조건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체제 논리에 포섭하려는 정치의도를 TV매체의 ‘보도와 서사’라는 전방위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 현상은 청년의 노동력을 추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청년을 체제 이탈의 불안정한 미래를 담보하는 다소 위험한 존재로 상정하며 이로써 그들을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체제 논리에 포섭하려는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지배력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으로 TV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정치는 앞으로 그 효력보다는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사실 미디어가 구현하는 이미지는 김정은 정권이 기획한 신화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 이면의 현실을 함께 비추기 때문이다.

주요용어 : 김정은, 북한, 청년정책, 청년중시사상, 조선중앙TV, 미디어 정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북한에서 청년층은 인민군대를 떠받치며 기간 및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주요 원천으로 존재한다. 이외에도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청년 인텔리들이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북한사회에서 청년층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 청년정책은 일찌감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청년정책의 효시인 ‘청년동맹’이나 김정일이 지정한 ‘청년절’과 ‘청년중시사상’은 이와 같은 북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북한에서 청년정책은 일종의 청년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정치적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보다 적극 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지도자 김정은의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태생적으로 ‘청년’이 지닌 ‘젊음’의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이에 정권 교체 직후 김정은은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전유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젊고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은 청년동맹 출신을 당의 핵심 지도부에 임명하면서 지도 세력의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절 행사가 확대되었고, 2016년 신년사 연설을 통해 북한사회를 “청년강국”²⁾으로 호명하며 이를 적극 선전하며 청년대회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적극적 행보는 북한 공식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사각각 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지속적 호출로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은 김정은 시대의 사회적 주체로 호명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젊음’의 이미지를 비롯하여 ‘청년’의 상징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³⁾

- 1) 북한 청년중시사상 및 청년정책에 관련 논의는, 본고의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해당 지면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 2)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 3) “우리시대가 더 젊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동지께서 나라를 이끄시는데 있다. 조선의 젊음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남다른 행운이다. 시대의 젊음은 나라의 발전면모에 비껴진다.” ; 김정은 시대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의 ‘젊은 나이’로 인하여 국가가 젊어졌고 이것이 바로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몇몇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완료된 시점인 2012년은 북한에서 강성대국의 목표를 두고 지정한 원년이었다.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건설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정권 교체의 불안정성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어져서 ‘문명국 건설’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그 시기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로 생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청년’을 향한 호명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김정은 시대는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대내외 선전용 이미지의 변화가 극적으로 감행되었다. 비단 이는 현상적인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시각적 환경을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고층 건물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및 다양한 문화유통 시설의 등장이 그러하다. 이처럼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공간 현실에 노출된 청년들은 문명국으로 가시화된 스펙터클의 표상을 살아가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삶이 강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⁴⁾ 이러한 점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한 건물의 대형화 다양한 문화향유시설의 등장 등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현재 북한의 청년들에게 무언가 다른 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최근 북한사회는 IT 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래 문화 불법 유입의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내부 경제 순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장마당의 형성으로 읍지에서 사적 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영역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다.⁵⁾ 이러한 변화한 북한의 환경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실 인식이나 정체성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지점을 지향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청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전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민의 행운이라는 글이 수록되곤 한다. ; 송미란, 「(정론) 젊어지는 시대」, 『노동신문』, 2014년 5월 5일, 2면.

4)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시에 드러난 ‘사회주의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 47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167쪽.

5) 강민정,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 『통일인문학』 64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5.), 123쪽.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변화된 청년정책 즉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TV매체를 통해 청년중시사상 및 청년정책을 강조하는 등 미디어정치를 활용한 청년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응전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관성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하기로 한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 청년중시 정책이 지닌 이전과 다른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은 선대 지도자로부터 달라진 김정은 시대만의 특징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청년정책을 TV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선전하는 최근의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로써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활성화 및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정책의 강조 현상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유효성을 진단해볼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남한에서 북한 청년에 관한 연구 분야는 적극 논의되어온 연구 분야가 아니다. 폐쇄적인 사회 성격을 지닌 북한에 관한 연구는 언제나 그렇듯 실제적인 연구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이유 때문에 연구적 제약이 늘 존재해왔다. 북한 청년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청년에 관한 연구들도 어느 북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대상과의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개 북한의 공식 문헌을 의존하여 연구되었다.

대표 연구로는 ‘청년동맹’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⁶⁾ 북한에서 ‘청년동맹’은

-
- 6) ① 김중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② 김중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정책연구』 22권, (통일연구원, 2013.)
 ③ 김중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평화학연구』 11권,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10.)
 ④ 김중수,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평화학연구』 11권,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10.)
 ⑤ 박채원, 「조선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5.)
 ⑥ 박채원, 「조선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⑦ 김창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7호, (한국동북아학회, 2013.)
 ⑧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4권 1호, (한국의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⑨ 서유석·김상범, 「북한 돌격대조직의 구조와 역할전망」, 『북한학보』 41집 1호, (북한연구소, 2016.)

청년정책의 효시에 해당한다. 관련 연구들은 공식문헌을 수집·정리·재구성하여 ‘청년동맹’이라는 근로단체의 정의와 단체 성격을 개괄하거나 사적 변화를 추적하여 ‘청년동맹’의 북한 내 역할이나 위상 등을 정리하고 있다. 청년동맹 연구는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이중 김종수의 연구는 독보적이다. 그는 그간 지엽적으로 혹은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온 청년동맹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⁷⁾ 최근 김정은 시대의 청년동맹의 역할에 대한 전망 및 예측을 논의한 바 있다.⁸⁾

특히 청년동맹 관련 연구들은 주로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 내에서 전개되었다. 물론 김종수의 가장 최근에 쓰인 논문은 시기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지도자로 막 등극하였던 시기의 청년동맹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그 결과에 대한 진단이기 보다는 추후 청년동맹의 역할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은 집권 5년차,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 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북한 청년 관련 연구에는 문화예술작품에 담긴 북한 청년의 형상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다.⁹⁾ 물론 북한에서는 문화예술 텍스트도 정권 통제 아래 당의 지침을 전달하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기에 이 연구들도 대개 공식문헌에 의존한 연구와 별 다를 바 없이 당이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 형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이와 함께 작품에 반영된 북한 청년의 현실을 읽어내려는 노력을 피하기도 한다. 즉 징후적 독해를 통해 작품에 담긴 북한 청년의 현실을 추측해보는 것이다. 사실 징후적 독해가 그 자체에 의도적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한 연구방법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일관해온 북한사회에 대하여 타자로서는 알아내기

7) 김종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8) 김종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정책연구』 22권, (통일연구원, 2013.)

9) ①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②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③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19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

힘든 북한 내부의 현실을 상상의 영역을 통해서라도 나뉠 추론하여 이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처럼 실증적 연구와 동시에 징후적 독해를 함께 시도하고 이로써 보다 입체적인 북한 청년 연구를 지향하기로 한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체제를 이탈해온 탈북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북한 사회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들에게서 북한 내부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가 용이해지고 있다. 그간 추측의 영역에만 사로잡혔던 북한 청년의 정체성 문제나 세대 문제 등이 보다 구체적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비교 검토 가능해졌다. 그래서 인지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¹⁰⁾ 이는 북한 사회 내부의 현실 경험을 통해 기존의 북한 청년 관련 연구로부터 파악한 다양한 정보를 비교 및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모르던 내부 사정에 따른 북한 청년의 특징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도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북한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체제 이탈을 선택하기에 이른 탈북 청년의 진술을 체제 내부를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의 인식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어 온 이와 같은 북한 청년에 대한 정체성 논의 및 북한청년의 세대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을 참조점으로 제공하고 논리를 보충하는데 부수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현재 조선중앙TV에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에 관한 강조 및 홍보와 선전 영상이 집중 방영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를 위하여 복무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상화되기도 한다. 사실 조선중앙TV는 북한 지도체제의 선전·선동을 위한 대표적 도구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다. 또 TV 방송이 수용자의 관심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현실을 아주 간과할 수는 없으며 때문에 인민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TV방송에 인민 현실이나 욕망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성격을 지닌 북한 사회의 총체적 단면을 파악하기에 조선중앙TV는

10) ① 황규성, 「북한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6.)
 ②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③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④ 김선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 북한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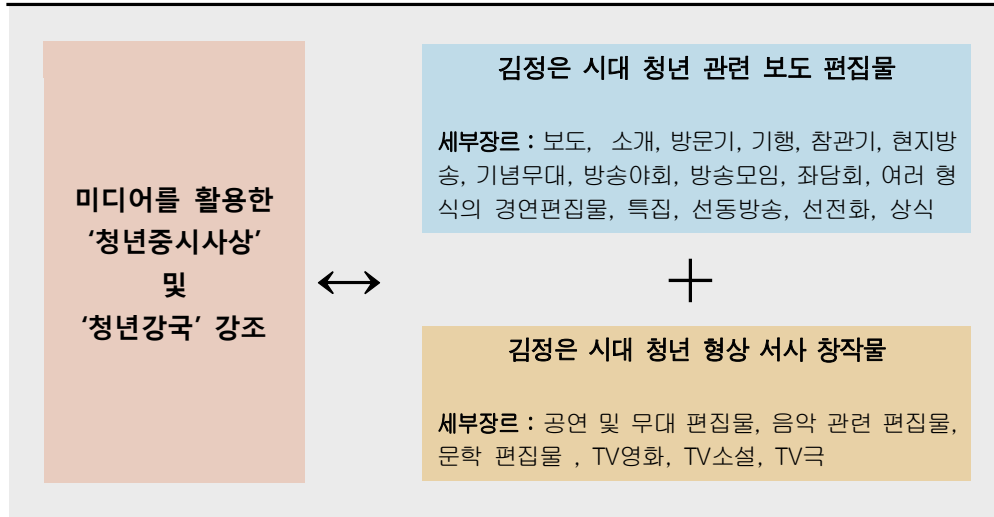
매우 효과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해석적인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당이 지정한 공식매체이자 문화예술 영역을 함께 다루는 종합미디어 성격을 갖춘 조선중앙TV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김정은 시대 청년 정책의 특성과 함께 김정은 시대 청년 형상화에 따른 북한 청년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청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김정은 집권 전후를 아울러 살펴야하는데, 이 시기 관련 방송을 모두 살펴 정리하려면 양적으로 방대하기에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TV 방송이 그러하듯 조선중앙TV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화되어 방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선중앙TV의 유형 및 세부장르를 토대로 본고가 파악하려는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 대상을 분류하여 이를 살피도록 한다.

먼저 조선중앙TV의 유형과 장르를 북한에 따라 보도편집물, 문예편집물, 일반편집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개별 장르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보도편집물의 경우 (1)내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정세·국제·날씨 보도, (2)형식에 따라 실황중계보도·현지보도·특화보도·시보·기사 등으로 구분한다. 문예편집물의 경우 (1)공연과 무대 편집물 (2)음악 편집물 (3)문학 편집물<시, 수필 등> (4)창작물<TV영화·TV소설·TV극>로 구분한다. 일반편집물의 경우 (1)영화적 구성의 편집물<소개·방문기·기행·참관기·현지방송>, (2)실화형식의 편집물<기념무대·방송야회·방송모임·좌담회·문답·여러 형식의 경연편집물 등>, (3)기타 편집물<특집·선동방송·선전화·상식 등>로 구분한다.¹¹⁾

따라서 본고는 위의 북한의 TV프로그램 유형 및 장르를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적 편의를 고려하여 분석과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1)보도 편집물과 (2)서사 창작물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피며 보도 편집물에서는 분석을 서사 창작물에서는 해석을 위주로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살피도록 하겠다.

11) 『광명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695-696쪽.



<그림 1> 조선중앙TV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세부장르

이때 보도 편집물은 북한식 유형과 장르에 따라 보도 전반과 일반 편집물을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서사 창작물은 북한의 문예편집물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둘의 유형별 세부장르를 구분하면, (1)보도 편집물은 전반적 보도 형태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소개, 방문기, 기행, 참관기, 현지방송, 기념무대, 방송야회, 방송모임, 좌담회, 여러 형식의 경연편집물, 특집, 선동방송, 선전화, 상식 등의 세부장르를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보도와 기록 등의 방송내용을 다루며 편집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반대로 서사 창작물은 공연이나 무대 편집물, 음악 관련 편집물, 문학 편집물의 예술 관련 방영 프로그램이나 TV영화, TV소설, TV극으로 대부분 서사가 담긴 방송 프로그램으로 창작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는 보도 편집물의 편성 현황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특성을 확인하며 서사 창작물에서는 내용 해석을 통해 서사에 담긴 김정은 시대의 청년 형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조선중앙TV를 종합미디어 성격을 지닌 하나의 정치기구라는 점을 상기하여 각각의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총체적 관점에서의 김정은 시대 '청년'을 다룬 프로그램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이 지닌 시사점을 확인하고 김정은 시대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주요 청년정책

북한에서 청년들은 매 시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국가 건설 시기 김일성은 청년동맹을 통해 청년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였다. 이후 김정일 후계구도 확립을 위해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개편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사회 내 성과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속도전’에 신체 건강한 청년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돌격대를 상설화한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새롭게 결성하기도 한다. 이후 김정일 시대에서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체제 위기가 가중되었는데, 때문에 청년의 체제 이탈의 가능성을 막고 그들을 체제 내 결속하기 위하여 청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중시사상을 고안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청년정책은 김정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승 및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은 지도자 등극 이래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연일 청년중시사상을 강조하며 ‘청년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김정은 이전 즉 북한 건립 초기부터 김일성, 김정일까지 북한의 청년정책에 대한 사적 개괄을 통해 기존 북한의 주요 청년정책이 지닌 의미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1절 청년의 정치사회화의 장(場), ‘청년동맹’

청년동맹은 북한 청년정책의 효시에 해당한다. 청년동맹은 북한의 3대 정권을 관통하는 핵심 청년정책으로, 당원을 제외한 만 14세에서 30세까지의 비당원 청년들이 가입하는 유일한 청년 단체이다. 이때 북한의 대학생과 군인 중 비당원은 예외 없이 이 조직의 맹원으로 활동한다. 이점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동맹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동맹은 북한 최대의 근로단체에 해당하기도 한다.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6일 개최된 북조선 민주청년단체 대표자회의에서 결성되었다. 초기 청년동맹은 ‘조선민주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이때 김일성은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명칭에 ‘공산주의’ 라는 표현 대신에 ‘민주’를 사용하였다.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소수정예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청년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중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길 원했던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단체에 포섭되어서 자신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였다.¹²⁾

김일성은 청년동맹 결성식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의 과업으로 “강력한 민족통일전선 결성을 위한 청년들의 사상통일과 청년간부의 양성”을 제시하였다.¹³⁾ 이로써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이후 통일 조국을 위한 청년들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1948년 11월 북조선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 대회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전면 강화하면서 각급위원회의 선전부를 정치문화교양부로 개편하고 이 부문의 직제를 지도원제에서 전임강사제로 고치는 등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게 되었다.¹⁴⁾

이후 조선민주청년동맹은 북한사회의 노동력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동시에 지식을 갖춘 고급 청년인력들도 함께 조직 내 포함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조선민주청년동맹은 북한의 경제건설과 대중계몽의 선봉대로서의 과업을 동시에 도맡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 시에는 조국수호의 선봉대 역할을 수행하고 전후에는 복구 건설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건설을 위하여 집중 동원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은 당의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들에게 당의 정책을 침투시키고 나아가 그 안에서 당원을 양성해내며 당 간부를 배출하는 등 당의 후비대로 성장하며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제건설의 돌격대 역할을 도맡아 체제 안정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64년 5월 5차 청년동맹 대회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 이는 1958년 북한이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이 사라져 형식상 북한사회 내 더 이상 적대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초 아래 사회 전반이 반제반봉건혁명시기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이라는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의 지향점이나 구성원의 성격도 일면 사회주의를 지향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수정된다. 이전 조선민주청년동맹이 각계각층의 청년들로 총 망라되었던 반면에 이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근로농민청년, 근로인텔리청년, 학생청년으로의 인적 구성의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 시기 청년동맹은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이 시기 북한사회는 유일체제를

12) 김종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평화학연구』 11권,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108쪽.

13) 김일성,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3-6쪽.

14)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4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59쪽.

확립해나감에 있어 당에 충실하고 수령에게는 희생정신을 갖출 것을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사업을 위주로 사업 성격을 전면 개정한다. 이 시기 청년동맹은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투사로 교양하고 후비대인 소년단 육성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 촉진을 위해서 동맹원인 청년들에게 김일성 저작을 심오히 연구하며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사업을 대폭 늘린다.¹⁵⁾ 이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이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며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 혁명의 리익에 복종할 굳은 결심을 다지도록 혁명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교양”되는 것을 조직의 기본과업으로 제정하기도 한다.¹⁶⁾

1970년대에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1971년 6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¹⁷⁾라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청년들에게 강조한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지도부는 1996년 1월 16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창립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동맹의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한 번 더 바꾼다. 이후 2002년 3월에는 청년동맹 대표자회를 개최하며 규약을 일부 수정 보충하여 청년들이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청년동맹의 과업으로 내세우게 되었다.¹⁸⁾

이처럼 북한의 청년동맹은 김일성의 세력 확대를 위한 청년 포섭을 위한 기본 조직으로 결성되었던 조선민주청년동맹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1차 명칭을 변경 후 공산주의 인간형과 유일사상을 통해 수령에게 희생정신을 갖춘 청년 육성 단체로 그 성격을 변화하기에 이른다. 이후 김정일 후계구도 확립 기간을 거치면서 김일성 사망과 함께 김정일이 지도자로 등극하며 청년동맹 규정은 다시 수정 및 보완되고 급기야 2차적으로 명칭 변경을 감행한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바뀐 청년동맹은 김정일을 선대지도자 김일성처럼 받들 것을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이를 주입하여 훗날 김정일 시대를 복무할 최적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교양한다.

북한의 당적 요구에 따라 청년동맹의 명칭과 규정 및 성격 등이 수시로 바뀌어온

15) 「조선민주청년동맹 5차대회결정서」, 『로동신문』 1964년 5월 17일. 참고.
 16) 조선청년사, 『청년들의 혁명화를 위하여』, 동경: 조선청년사, 1969, 7-12쪽.
 1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19-20쪽.
 18) 차승주, 앞의 글, 60-64쪽.

북한사회에서 청년동맹은 북한 청년들의 역할 규명을 상부에서 정해 이를 하달하며 그렇게 청년들이 당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양하며 정치사회화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청년동맹’이라는 단체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돌격대의 상설화, 속도전청년돌격대

김정일은 1974년 3월 말 사로칭 전원회의에서 속도전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 5월 16일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처음 결성되었다.¹⁹⁾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청년운동의 전통인 돌격대와 김정일이 창조한 1970년대 대중운동 방식인 속도전이 결합된 방식의 경제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임금 노역을 통한 북한 무형의 재정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특이점은 이 단체가 청년동맹 산하 상설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장, 기업소, 탄광, 철길 등 사회 기반공사에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사업에서 기여할 노동량을 채우면 당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는 형태를 취한다.

김정일은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만들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나가는 정규화된 전추적인 노력부대이며 자랑스런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혁명학교”²¹⁾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을 청년 노동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수시 건설 현장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장에 투입되는 단체이며, 이들은 대체로 저급한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공정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건설토목 공사의 현장에서 당이 정한 목표치와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물론 당의 보상을 기대하며 자원하는 청년 이외에는 노동의 현장이 워낙에 고되고 힘들어 자발적으로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되기를 꺼려하였다.²²⁾ 그러므로 대학에 가기는 어렵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직접 지원하거나 청년동맹지도원이나 담임교원 눈밖에 벗어난 문제적 청년들이 주로 모집 대상자가 되었다.

19) 「속도전청년돌격대창립 15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90년 5월 17일, 4면.

20) 서유석·김상범, 「북한 돌격대조직의 구조와 역할전망」, 『북한학보』 41집 1호, (북한연구소, 2016.), 155-156쪽.

21)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1쪽.

22) 김종석, 앞의 책, 327쪽.

따라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체제 순응형의 청년들과 지성적 인텔리 청년들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청년들이 투여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대규모 건설 분야에 투여될 젊은 신체를 지닌 청년들의 노동력 동원을 1차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문제적 청년들에게 오히려 과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들의 신체를 끊임없이 작동케 함으로 그들이 행여나 불순한 사상적 의도를 내면에 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년층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2차 목표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히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본래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조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규제와 통제의 기구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청년들은 군대처럼 항상 제복을 입어야 하는데, 제복 왼쪽 앞가슴에는 김일성 뱃지 아래 직급표시를 달아야 하며 붉은 오각형 별이 달려 있는 모자와 혁대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²³⁾ 이러한 점은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노동력 동원과 함께 청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위한 기구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제3절 위기대응의 청년 유인책, 청년중시사상

1990년대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는 북한을 사실상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했다. 여기에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식량난까지 겹쳤던 고난의 행군 기간에는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극심한 상태를 지나쳐 국가 관리 능력이나 사회 통제력조차 거의 저하된 상태였다.

특히 이 시기 중국의 청년들이 주도한 천안문 사태와 소련 내 청년 교양사업 약화를 통해 나타난 대규모 청년동맹 탈퇴 현상 후 이어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사례 등을 북한은 이미 목격한 상태였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그들의 노동력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체제 이탈 방지를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에 청년들을 독려하여 함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청년 유인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의 청년정책은 그간 ‘청년동맹’에만 의존해오던 경향에서 벗어나 이와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려 한다. 청년중시사상의 등장은 이러한

23) 서유석·김상범, 앞의 글 참고.

연유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북한에서 ‘청년중시’란 용어는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사적 표현에 가까워 그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산주의 사상의 정신력 고양 및 정치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²⁴⁾ 즉 청년중시사상은 마치 국가 건립 시기부터 청년중시사상을 정책화하였던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이 시기 고안된 새로운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청년중시사상은 북한 사회 각 부문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의 역할을 내세우고 치켜세움으로써 사기를 고양하고 수령에게 더욱더 충성하도록 하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김정일은 청년들이 당을 위해 무보수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청년중시사상을 실천적 행위와 결합시켜 김정일 시대 철도역과 거리, 기념비적 창조물 사업에 ‘청년’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호명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청년들을 기념하고 치켜세우는 전략을 취한 바 있다. 대규모 건설이나 기간 사업에 동원된 청년들을 독려하기 위한 호혜의 전략인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김정일은 청년중시사상을 가시화하고자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할 당시 결성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²⁵⁾하기도 한다. 김정일은 청년들을 독려하며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년절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그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념일을 선사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항일투쟁 당시 결성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과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항일혁명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항일투쟁 당시 청년들을 기리도록 함으로써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위와 명분을 제공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년절 기념행사에는 사회 전 부문에서 청년들이 적극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제일 처음 진행하는데, 이는 청년들의 활동을 인민 앞에 내세워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²⁶⁾ 이처럼 김정일 시대 청년중시사상은 청년동맹에

24)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42쪽. ; 김중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347쪽.

25) 『로동신문』, 1991년 2월 1일, 참고.

26) 김중석, 앞의 책, 372쪽. ; 김중석의 견해에 동의한다.

의존하던 경향에서 벗어나서 기간사업에 청년이란 명칭을 넣어 호명하게 한다거나, 청년절을 제정하여 청년 위주의 행사가 가능한 기념일을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호혜성의 청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엄밀히 따져볼 때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유인책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제3장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과 조선중앙TV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청년정책을 계승하되 보다 확대 및 확장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선 김일성 시대 조직된 청년동맹을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 김정일 후계구도 시절 상설기구로 기획한 청년의 노동력 동원과 통제 기능을 동시에 맡았던 속도전청년돌격대와 유사 기능을 지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통해 숙원사업을 완료해낸 바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 국제적 고립 및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기능의 상실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존재한 청년중시사상과 이로 인해 제정된 청년절 등의 호혜적 청년정책을 보다 확대 및 확장하여 김정은 시대에는 청년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거나 ‘청년강국’을 기치로 내세워 ‘청년신화’를 운운하는 등 호혜성의 청년정책을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다보니 조선중앙TV에는 이렇듯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행보가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세워 이를 서사화하여 보여주며 이로써 새로운 신화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식 청년정책이 무엇을 홍보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선중앙TV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현상과 이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의 공식 매체이자 관영선전매체로, 체제선전에 핵심 기능을 두고 있다. 모든 방송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 및 시간을 결정하여 만든 운영계획인 편성에 맞추어 방영된다. 이때 편성은 프로그램의 단순 배열이 아닌 제작방향과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방송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선중앙TV의 편성도 그들이 지향하는 핵심 기능인 체제선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되기 마련일 것이다. 즉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사상성의 견지를 선결조건으로 하며 문화성과

예술성을 지켜나가는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조선중앙TV는 기본적으로 권력계승의 정당성 강조, 지도자의 위대성 선전, 당 정책 및 지도자 교시 전달, 증산을 위한 경제 선동, 인민을 위한 교양을 다룬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하여 편성한다.²⁸⁾ 물론 북한에서도 “당의 정책적 과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방송이 구현되기 때문에 시기와 계기, 정세와 정황을 잘 고려하여 편집·편성”²⁹⁾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처럼 기본적 편성 구성은 변하지 않더라도 시기적 상황이나 정책적 계기에 따라 제한적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에서도 편성에 있어서는 제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김정일 시대와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미세한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김정은에 대한 이상화가 강화되었다. (2)청년 관련 보도, 과학 및 첨단 기술 소개, 스포츠 소식 등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3)해외 드라마 및 해외 방송과 선정적 공연 및 오락형 방송이 확대되고 있다.³⁰⁾

이때 김정은 이상화의 강화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지도자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조치로 이해 가능하다. 또 청년 정책 관련 보도나 과학 및 첨단 기술의 소개 그리고 스포츠 소식의 양적 증가는 김정은 정권의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편성이 변화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강국, 과학기술강국, 체육강국 등 김정은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기치에 따라 그 분야 방송이 다수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드라마 방영 및 해외 방송, 선정적 공연 및 오락형 방송의 확대 편성은 북한 인민들 사이에 불법 해외 방송 및 한국 방송의 유입에 따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및 한국의 방송을 접한 인민들이 영상매체의 예술성이나 오락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상성만 강조하는 조선중앙TV 프로그램으로부터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조선중앙TV의 시청률은 낮아지고 있고 북한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조선중앙 TV 편성에 제한적이거나 관련 변화를 시도하는 중으로 파악된다.³¹⁾

27)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5-81쪽. 참고.

28) 남한에서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의 조화로운 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는 등 관련 편성 법제가 존재한다. ; 김재철, 『한국의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546-585쪽 참고.

29) 리석규 외, 『방송리론』, 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985, 138쪽.

30) 여기에 적힌 ‘청년 관련 보도의 양적 증가’는 필자가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편성의 변화를 추적한 이주석의 논의에 임의대로 추가한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 이주석,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229쪽.

본고는 이중에서도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 연구라는 연구주제에 알맞게 방송횟수의 양적 증가 분야 중에서도 '청년정책 보도의 증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을 다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다. 이장에서는 우선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 방송의 편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서사에 담긴 청년 형상을 파악한 후 이를 비교·종합하여 김정은 시대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정책의 함의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1절 보도 편집물의 청년정책과 미디어정치

북한에서 보도 편집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선전 선동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그 어떤 논리보다도 강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본래 보도의 특성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사고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보도는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동원할 수 있도록 조직 선동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시키기기 위한 이상화 및 선전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 핵심을 둔다.³²⁾ 따라서 북한에서 보도 편집물은 다른 어느 장르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적 행보를 전달하며 선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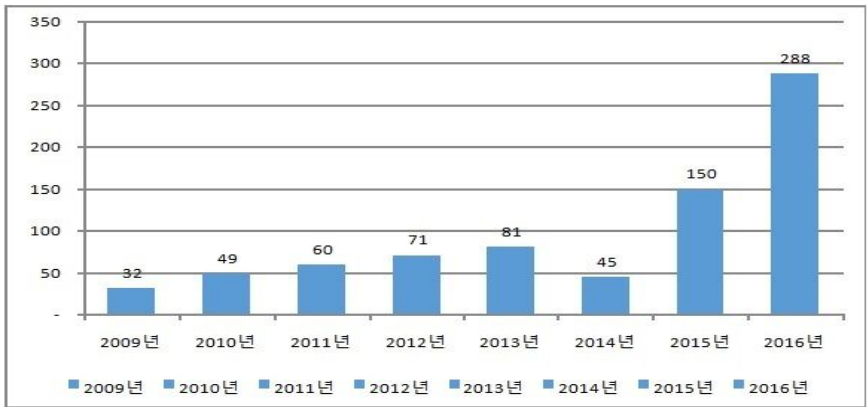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TV의 보도 편집물은 집중적으로 청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는 '청년 관련 보도의 양적 증가'라는 현상 차일뿐만 아니라 편성을 통해 방송 횟수의 구체적 수치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의 계승과 변화의 지점을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이 '청년 지도자'로 후계구도에 올랐던 2009년³³⁾부터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지 5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 즉 2016년 10월 최근까지 이 기간 동안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청년 관련 보도의 편성 횟수를 직접 확인한다.

31)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통일연구원, 2014), 153쪽.

32) 이희은, 「김정은 시기 조선중앙TV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3) 북한에서는 2009년부터 청년장군 김정은 대장 동지를 이상화하는 노래 공연극의 출현하였고, 2009년 6월에 나온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서 본격 후계자로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영권, 『백두혈통의 미래 : 북한 3대세습의 작동원리』, 서울: 이지출판, 2015, 60-61쪽.

<표 1> 김정일 시대 조선중앙TV 보도 편집물 편성 현황



본고는 2009년부터 2016년 10월 최근까지 조선중앙TV에 총 776편의 청년 관련 보도 및 편집물이 방송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표1>로 정리하였다. 살펴보면 2009년부터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의 방송횟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에 특히 관련 방송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먼저 점진적 증가³⁴⁾에 대해 알아보면, 김정일 사후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태생적으로 청년이 지닌 젊음의 이미지를 부여 받은 데에다가 정권 교체 직후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전유하며 이로써 김정은은 젊고 친근한 청년 지도자로 내세우며 동시에 자신의 후견세력인 ‘청년’에 대한 호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사망 전 북한사회는 그간 목표해온 강성대국의 원년이었던 2012년을 기점으로 건설 분야에 도달해야할 과업이 산재해 있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를 지닌 청년 노동력이 그 어떤 시기보다 더욱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청년 노동력 동원을 위한 청년 관련 방송은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물론 2012년 이후에는 김정은이 지도자 등극 후 체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강성대국을 위해 준비해둔 많은 성과들을 김정은 자신의 가시적 성과로 치환해나간다.³⁵⁾ 따라서 이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구현해야할 가시

34) 사실 청년 보도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양적 증가는 2014년에는 예외적이다. 2014년은 총 방송이 다른 해보다 유독 적어진 한해였는데 때문에 청년 관련 방송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외적 요인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나 내적 요인으로서의 방송국의 재정 경제상 문제로 이해해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이러한 예외적 현상에 대한 논의는 우선 본고의 핵심 논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논문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적 성과를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으며, 이에 동원해야 할 청년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보니 과급력이 비교적 센 TV미디어를 통해 노동력 동원과 독려를 위한 청년 호명의 방송 횟수가 자연스럽게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는 청년 관련 보도 및 기록물의 방송횟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난다. 본고는 이것이 보도 특성 상 김정은의 청년정책 활성화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파악한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청년절 경축 행사를 확대하고 “청년강국”의 기치를 내걸며 김정일 집권기였던 199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청년동맹대회를 23년만에 다시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최근 김정은 정권은 청년정책의 적극적 행보는 미디어를 통해 선전된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은, 선대지도자들의 청년정책을 계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활성화하며 이를 미디어를 통해 적극 선전 및 홍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 행보를 통해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자신의 후견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김정은 집권 전후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에 대한 시기별 세부장르의 분포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보려 한다. 시기별 세부장르 분포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본고는 김정은 시대를 (1)김정은 후계자 시기 (2)김정은 지도자 등극 시기 (3)김정은 체제 안정화 추구 시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을 우선 밝혀둔다. 이때 (1)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김정은이 후계구도 시기였을 때를 의미한다. (2)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시기를 의미한다. (3)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를 추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 김정은 시대의 사회적 특징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35) 기록영화<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 경성탁아소,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조선중앙TV, 2012.5.30.)에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쓰인 것과 달리 불과 두 달 후의 방영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상유치원을 돌보시였다>(조선중앙TV, 2012.7.14.)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바뀌었다. 이로써 경상유치원은 김정은의 치적으로 대체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계획된 경상유치원 재건축은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재빠르게 김정은의 가시적 성과물로 탈바꿈되었다. ;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60집,(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소, 2014.), 214-215쪽.

<표 2> (1)김정은 후계자 시기(2009-2011)

2009년		2010년		2011년	
장르	횟수	장르	횟수	장르	횟수
소개편집물	19	소개편집물	21	소개편집물	25
조선기록영화	4	록화실황	6	례의범절과 우리 생활	12
현지지도 소식	3	집중방송	4	참관기	6
축하방송	2	현지방송	4	현지방송	4
현지방송	2	지도자 관람 소식	3	집중방송	3
록화실황	1	방문기	2	실화	2
참관기	1	조선기록영화	2	공연기록	1
합계	32	좌담회	2	록화보도	1
		참관기	2	록화실황	1
		공연기록	1	방문기	1
		축하방송	1	정치상식	1
		특집	1	조선기록영화	1
		합계	49	체육시간	1
				특집	1
				합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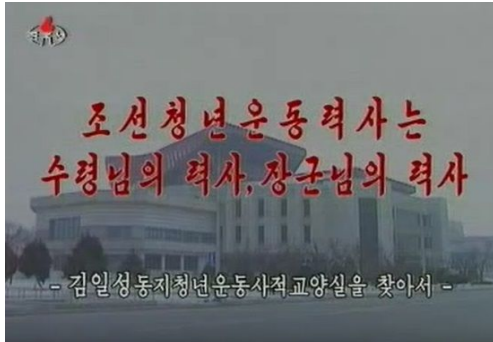
(1) 김정은 후계자 시기(2009-2011)를 정리한 <표 2>는 조선중앙TV에 방송된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의 세부 장르 중 <소개편집물>이 가장 많이 방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방송은 주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청년>, <희천발전소건설 조선인민군청년돌격대>, <평안남도청년돌격대>, <강원도청년돌격대> 내 청년들을 소개하며 돌격대의 전투적 노동현장을 찾아가 이를 편집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송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목표를 앞두고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강박에 의하여 노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주체로 청년층이 호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년의 건강한 신체로 말미암아 뛰어난 노동력을 지닌 청년층에게 정해진 노동량을 달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청년들이 당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며 적극 동원에 임하는 것이다.

<표 3> (2)김정은 지도자 등극 시기(2012-2014)

2012년		2013년		2014년 <예외적 상황>	
장르	횟수	장르	횟수	장르	횟수
소개편집물	15	체육경기소식	24	소개편집물	15
련속참관기	8	련속참관기	11	현지방송	7
방문기	7	현지방송	9	공연기록	4
집중방송	6	소개편집물	8	련속참관기	3
지도자 촬영 소식	5	지도자 관람 소식	8	지도자 연설 소식	3
현지방송	5	현지지도 소식	6	축하방송	3
록화실황	4	특집	3	련속음악편집물	2
특집	4	방문기	2	잊지못할화폭	2
방송야회	3	잊지못할화폭	2	조선기록영화	2
조선기록영화	3	조선기록영화	2	집중방송	2
동승기	2	종합편집	2	체육경기소식	2
잊지못할화폭	2	록화실황	1	합계	45
정치상식	2	정치상식	1		
청년동맹소식	2	집중방송	1		
실화	1	텔레비죤편집물	1		
지도자 연설 소식	1	합계	81		
참관기	1				
합계	71				

(2) 김정은 지도자 등극 시기(2012-2014)를 정리한 <표 3>은 기존 <참관기>가 <련속참관기>로 확대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존의 <참관기>는 기초적 정보 전달에 가까운 반면에 이 시기의 <련속참관기>는 <백두산위인들과 주체의 청년운동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혁명사적교양실을 찾아서>라는 제목 아래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9화까지의 연속물이 기획되는 등 주로 백두위인들과 청년운동의 신화를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으로 재편되었다. 주로 이 방송은 현재의 청년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혁명전통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백두위인의 곁을 지킨 청년혁명가들의 삶과 그것의 위대성을 주창하는 내용을 담아 연속적으로 기획하여 미디어를 통해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공 되도록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백두혈통 이외에 권력세습의 당위가 없던 지도자 김정은을 위하여 복무할 청년들에게 나뉠의 당위를 부여하고 강조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청년들이 백두위인 곁에서 영웅적 삶을

살아온 것처럼 김정은 시기의 청년들도 지도자에게 헌신하여 지도자 김정은을 위한 영웅적 삶을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참관기_2009년



연속참관기_2012-2014년

<그림 2> 참관기와 연속참관기 비교

또한 이 시기 체육 관련 청년영웅을 보도하는 방송들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방송들은 대개 청년들의 체육 경기 소식을 담아내며 신체적 능력의 위대함을 영상에 담아낸다. 이처럼 체육 관련 소식 보도의 양적 증가는 대개 체육 경기를 소화하는 청년을 소개한다거나 그들의 경기를 보도하며 청년 관련 방송의 양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체육 경기 후에 청년 선수의 인터뷰가 뒤따르는 구성 때문에 이를 통해 신체적 능력을 당을 위해 복무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신체적 능력이나 재능을 당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전략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타국의 다양한 TV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유입하고 이에 노출된 인민들이 북한 당국의 중앙 방송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즉 흥미 위주의 오락프로그램을 목말라하는 인민들에게,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소식은 오락의 영역을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기능하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며 스포츠 기량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 선수들에 대한 보도가 그 사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 (3)김정은 체제 안정화 추구 시기(2015-2016.10 최근까지)

2015년		2016년	
장르	횟수	장르	횟수
현지방송	36	현지방송	61
소개편집물	33	연속참관기	43
지도자 촬영 소식	12	소개편집물	43
현지지도 소식	12	연속소개편집물	23
특집	10	조선기록영화	22
집중방송	9	현지지도 소식	19
지도자 관람 소식	7	지도자 연설 소식	18
록화실황	6	텔레비죤기록편집물	12
지도자 연설 소식	6	록화실황	9
방문기	4	집중방송	8
조선기록영화	4	특집	8
좌담회	3	지도자 촬영 소식	6
축하방송	3	청년동맹소식	6
청년동맹소식	2	축하방송	5
공연기록	1	방문기	4
잊지못할화폭	1	실황중계	1
정치상식	1	합계	288
합계	150		

(3) 김정은 체제 안정화 추구 시기(2015-2016.10)인 <표 4>에는 현상적으로 볼 때 ‘청년’을 다루는 보도 편집물의 방영 횟수가 거의 모든 장르 면에서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이 시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지도> 방송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가 우선적으로 파악된다. 방송 장르로서 <현지지도>는 지도자가 직접 북한의 인민들의 생활 장소로 찾아가 그에게 세세한 관심을 표현하는 호혜를 베푸는 정치적 행위에 하나인 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매체를 통해 선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의미한다. 이때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친밀한 접촉’을 가능케 하는 현지지도는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유지와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는 대표적인 정치 행위 중에 하나이다.³⁶⁾ 그러므로 지도자가 방문하는 대상과 지역은, 그 시기 지도자의 관심이 미치는 영역

36)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2013, 51쪽.

으로 간주되며 가장 필요로 하는 정치적 대상이다. 따라서 최근 이처럼 현지도도를 통해 ‘청년’들을 찾아가는 횡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방송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청년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 및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늠케 한다. 즉 청년들을 찾아가 일일이 지도하고 세세하게 챙기는 지도자 김정은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될수록 이는 최근 북한 사회에서 청년층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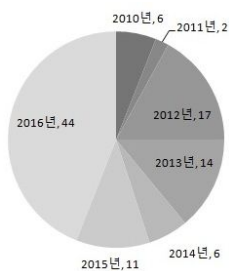
이외에도 최근 청년 관련 보도 프로그램은 형식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즉 세부장르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을 보도하는 세부장르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양상이다. 그 예로 <표 4>를 보면 <축하방송>, <록화실황>, <특집>, <집중방송>, <청년동맹 소식> 등의 다양한 장르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북한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이를 미디어가 충실히 반영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국가 기획 차원에서 ‘청년중시사상’은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이를 보다 적극 수행하려면 다양한 세부장르를 전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선중앙TV에는 청년들을 소개하는 보도 편집물에서 그 층위가 한층 적극적이고 다양해졌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기존의 돌격대원 및 체육인 소개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나 과학 분야의 청년 인재 소개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림 3>은 “현대성에 발맞춘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상징화하며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의 컴퓨터 기술의 뛰어난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이는 최근 김정은 정권이 사회적 주체로의 ‘청년’을 호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회 구성 전면에 청년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후비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림 3>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_2016. 2.7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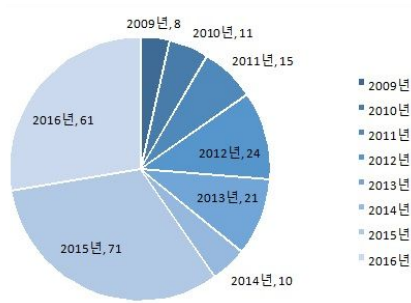
한편 최근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나 소재로는, ‘청년동맹’, ‘백두산청년발전소 완공’, ‘청년강국’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청년동맹에 관한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는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의 정책적 활성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16년 8월 26일 평양에서 청년동맹 제 9차 대회를 통해 공식 기념행사가 부활되었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 전 해인 1993년에 청년동맹 기념행사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전혀 개최된 적이 없었던 청년동맹 기념행사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6년 23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따라서 <그림 4>에서처럼 제9차 청년대회를 전후로 이에 대한 보도와 성과 찬양 등의 편집물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청년동맹을 다룬 보도 편집물의 연도별 방송 편수

<그림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
_2016. 8.29.방송

또한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에는 고된 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김정은 체제가 도달하려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마다 않는 청년들의 치적을 기리는 방송이 많았다.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자주 찾아가며 직접 그들을 취재하고 그간 생산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온 노동 청년의 모습을 지속 노출하는 미디어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청년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찬사와 그들의 노고를 가치 높게 평가해야한다고 교양하는 내용을 주로 담는다. 특히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에서는 이들 청년들의 노동력을 신화화하는 서술 맥락이 유독 자주 등장한다.



<그림 6> 백두와 청년의 결합어를 사용한 보도 <그림 7>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대한 보도 편집물의 연도별 방송 편수(기간: 2009-2016) 편집물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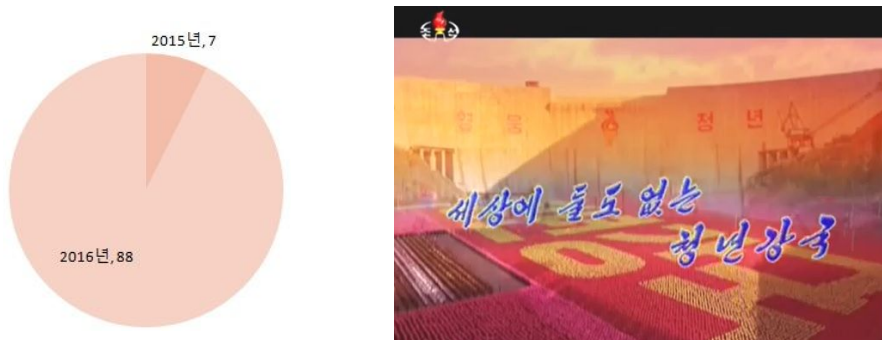
때문에 <그림 6>처럼 최근 청년 관련 보도 편집물의 특징으로 ‘백두’와 ‘청년’을 결합한 상징적 표현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립 완성에 대한 <보도> 및 <현지지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립에 기여한 청년영웅들에 대한 <소개>, 백두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지도자의 <강령>, 백두영웅청년 발전소의 완공에 따라 편성된 <특집>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방송이다.³⁷⁾ 이들 방송의 주된 내용은 순수한 청년들이 추구하는 고결한 노동력과 대를 이은 희생에 대한 숭고함을 노동영웅의 신화로 상징화하는 데 있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 최근 청년정책은 상징정책의 속성을 보다 부각한다.³⁸⁾

예를 들면, 2016년 4월 <현지지도> 방송에는 김정은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에 맞춰 그곳을 찾아가 현지지도를 하던 중에 ‘백두영웅청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를 보여주는 교양거점”이라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면서 오늘의 어려운 시기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됐

37)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완공 현장을 방문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백두산청년영웅정신’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었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38) 상징정책은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하는 정책을 알몬드(G.A. Almond)와 파워(G.B. Powell)이 정책을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분배정책·규제정책·추출정책·상징정책 중의 정부의 정책결정 체제가 국내 및 국제사회에 공포하는 상징적인 판단, 가치선택, 결정 등과 관련된 상징정책을 의미한다.; 김영중·최봉기 외, 『행정학』, 법문사, 1997, p.251.참고

다”고 지도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하였다. 청년돌격대를 통해 백두산영웅청년 3호 발전소를 반년 안에 완공시킨 것을 두고 김정은은 이를 김정은 시대를 상징적 성과로 지정한다. 이로써 ‘청년층’은 김정은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돌적 청년 정신을 지닌 사회적 주체로 호명되기에 이른다. 이는 이전 정권과 달리 김정은이 ‘청년중시사상’의 계승과 발전에 주력하고 이를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며 ‘청년담론’을 적극 주조하여 김정은 시대의 청년 특성을 조직하려 하며, 나아가 이러한 청년담론의 적극성을 김정은만의 시대적 특성으로 확대 및 확장해나가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청년강국 보도 편집물의 방송 편수 <그림 9> 청년강국 관련 보도 편집물의 예 (기간: 2009-2016)

이런 이유로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청년강국’이란 가치를 내걸며 본격적으로 청년강국의 북한사회를 선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림 8>에서처럼 ‘청년강국’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도 대폭 늘어난다. 특히 <그림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강국’은 2015년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이다. 때문에 ‘청년강국’은 사실상 고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 시대의 청년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청년강국’을 다룬 보도 편집물 대부분은 김정은 시대에 고안된 ‘청년강국’을 김일성-김정일의 청년동맹 및 청년중시사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소개한다. 본래 이것이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청년정책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강국’을 마치 실제이든 아니든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³⁹⁾하여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하는 프로파간다의 기술

39) 니콜라스 잭슨 요쇼네시는 프로파간다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하며 프로파간다는 실제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중요치 않으며 오히려 증거를 가장 유리하게 배치하는 것을 통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며, 이는 본래적 설득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오

을 활용하여 TV의 보도 편집물에 청년강국을 이전 정권의 정책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전통성을 세우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다수의 보도 편집물을 대상으로 하여 편성 현황을 파악 후 장르별 편성 분포의 추이를 추적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적극적 행보에 나타난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첫째,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보도의 양적 증가는 미디어정치 분야에서 방송 시간의 확보 그 자체가 정치적 안전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전 및 광고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맥락⁴⁰⁾과 동일한 맥락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전략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즉 김정은 시대 청년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 노출은, 김정은 정권의 청년 중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와 다름이 없다. 둘째,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보도편집물에 등장한 백두와 청년의 결합의 상징성 부각 등을 통해 주로 특정 가치나 의미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상징정책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정책의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사회 내 가치 중심을 청년층으로 이동하는 사상적 변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청년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는 김정은 시대는 청년담론의 구조를 통해 이전 정권과는 다른 김정은 시대만의 특징을 구가하려 한다. 따라서 청년에서 파생되는 젊음의 이미지를 김정은 시대만의 시대적 특징으로 전유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대세습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은 정권에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이전 정권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서술하기보다 오히려 TV미디어를 통해 이전 시대의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부각하고 역사성이나 전통 여부를 더욱 강조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면서 이로써 최근 북한사회를 청년강국의 유토피아로 선전하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정책은, 표면적으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청년들에게 할당되는 극심하게 과도한 업무량을 마치 국가에 이바지하는 성과로 치켜세우는 보도 형태와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 일상의 현실적 장소들이 지속 노출되는 취재 영상에서 김정은 시대

히려 허위진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 설득을 하려는 행위로 이해한다. ; 니콜라스 잭슨 요쇼네시, 박순석 역, 『정치와 프로파간다』,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9. 185쪽.

40) 심영섭, 「미디어 생산 시간이 미디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년 2월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190쪽.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된 노동의 모습이 먼저 확인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0>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나는 조선중앙TV 보도 편집물의 장면

예를 들면 <그림 10>과 같이 백두산청년영웅 건설 현장을 취재한 보도 편집물만 보더라도 영하 35도 이하의 추위에서 청년들이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언 바위에 못질을 하며, 찬물에 몸을 넣어 뗏목 자재를 이동하는 등 참혹하고 고된 노동의 일상을 견뎌내는 청년의 모습이 담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레이션은 오히려 노동 전투력에 대한 찬사를 외치고 청년의 노동력 동원을 주도하기에 급급하다. 이처럼 보도 편집물이 반영하는 현실의 이미지와 신화화된 노동력을 찬양하는 내레이션과의 충돌은 미디어를 활용한 김정은 시대 청년 정책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게 한다.

제2절 서사 창작물의 청년 이상화와 정치적 함의

북한 TV방송에서 서사 창작물은 예술 장르에 해당하며 교양 기능을 담당한다. 즉 북한 지도체제의 선전·선동 도구인 동시에 인민들이 즐길 수 있을만한 오락성을 지녀야 하는 창작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중앙TV의 서사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작되지만 장르적 특수성에 의거하여 수용자의 관심에 상응하고자 인민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총체적 단면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연구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청년을 형상화한 서사창작물들을 우선 파악하고,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이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때 서사 창작물에는 공연이나 무대 편집물, 음악 관련 편집물, 문학 편집물이 해당하며 이와 함께 TV드라마(TV영화, TV소설, TV극)⁴¹⁾가 포함된다. 사실 서사 창작물은 지도자의 정치적 행보를 시시각각 담아내는 보도 편집물과 달리 기획 후 제작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방영 시 김정은 시대의 청년 형상을 담아내는 데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김정은 시대의 청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은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단계에서 조선중앙TV가 제작하고 방영한 서사 창작물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김정은 지도자 등극 이후 2012년부터 2016년 최근까지 조선중앙TV에서 제작하거나 방영한 서사 창작물로 그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이중에서도 김정은 시대 청년 형상이 주로 반영된 작품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대상이 될 김정은 시대 청년 형상이 담긴 서사 창작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청년 형상이 담긴 서사 창작물

문학 편집물	수필	땀방울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2015	-
	시소개편집물	장쾌하다, 백두산영웅청년 신화의 메아리	2016	-
	서사시	백두산영웅청년신화- 이 서사시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게 드린다	2015	-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한동선	2015	
	서사시	백두청춘을부러워하자-이서사시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80돛에드린다	2015	1-3화
공연 녹화본	경희극	사랑	2012	-
	경희극	향기	2015	-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	2016	-
TV드라마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2012	2부
	텔레비죤극	기다리는 아버지	2013	2부
	텔레비죤극	소년탐구자들	2013	1부
	텔레비죤예술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4	1-3부
	텔레비죤극	표창	2015	1부
	텔레비죤극	귀중히 여기라	2016	1부

41) 여기에서 TV영화, TV소설, TV극은 'TV드라마' 라는 하나의 장르로 통합할 수 있다.

<표 5>를 보면 보도 편집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조선중앙TV에 청년 관련 내용이 담긴 서사 창작물도 상당량 제작 및 방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조선중앙TV의 환경 여건 상 제작비가 많이 드는 서사 창작물에 해당하는 TV드라마나 공연 녹화본의 경우, 언제나 제작은 적은 편이고, 재방송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따라서 <표 5>에 확인된 청년 관련 서사 창작물은 조선중앙TV의 제작 여건과 재방송 비율까지 포함하여 가정할 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 관련 서사 창작물이 다수 제작 방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장시



<그림 12>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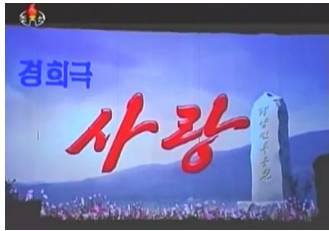
<그림 13> 시 편집물



<그림 14> 돌격대원들의 시 일부

수필과 시 등의 문학 장르에 영상과 배경음악을 결합하여 TV로 전달하는 문학편집물은 김정은 시대의 청년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직설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그림 12>와 <그림 13>에서처럼, 시들은 주로 “물집이 터질 정도로” 일하고도 “누리는 것보다 바치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아는 청년 돌격대의 모습을 시에 담는다. 즉 김정은 시대의 청년돌격대를 신화의 주체로 상징화하고 청년층에게 이들을 따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이전의

세대들에게 희생정신이나 혁명정신 등 당에 대한 충성의 자세를 본받길 바라던 기존의 서사 방식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김정은 시대에는 본받을 만한 대상을 원로나 기성세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세대인 특정 청년들로 지정 및 기획하며 그들을 영웅화하여서 그들에게서 김정은 시대의 청년만이 지닌 고귀한 희생정신을 청년들에게 배우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보도 편집물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사회적 주체를 청년으로 호명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 가능한 데, 이러한 기획이 TV매체의 문학 장르의 형태를 빌어 비교적 노골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공연녹화본 : 경희극 <사랑>, 2012년 作 및 2012년 TV방영
 <그림 16> 공연녹화본 : 경희극 <향기>, 2015년 作 및 2015년 TV방영
 <그림 17> 공연녹화본 :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 2016년 作 및 2016년 TV방영

공연녹화본 중에는 김정은 시대 청년을 형상화한 공연녹화본으로 경희극 <사랑>, 경희극 <향기>,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 세 편의 공연녹화본을 들 수 있다. 공연녹화본은 실제의 공연을 녹화하여 이를 과급력이 센 TV매체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다 널리 전달하는 형태의 방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연 녹화본은 공간적 제약을 지닌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TV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공연녹화본은 보다 과급력이 뛰어난 선전 선동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이때 일회성의 공연을 TV를 통해 반복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특징이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한다.

이때 <사랑>, <향기>, <백두의 청년들>이 모두 경희극의 공연을 녹화본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에서 경희극은 “부정적 형상들을 가벼운 웃음을 통하여 비판 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된 희극 형태로 인민들을 교양하는 힘 있는

수단⁴²⁾으로 활용되어왔다. 즉 단선적인 서사 구성 및 평면적 인물들로부터 파생되는 선명한 주제의식을 통해 비교적 당의 의도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장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연녹화본에는 당이 요구하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모습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8> 배경: 평양민속공원 경희극 <사랑> <그림 19> 배경: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현장_경희극 <백두의 청춘들>

이들 공연녹화본에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시대 역점사업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경희극 <사랑>에서 평양민속공원의 노동부원 청년들, 경희극 <백두의 청춘들>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현장에 복무하는 돌격대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에 경희극 <향기>는 지방의 한 어촌으로 배경을 두고 있는데, 주인공 강선기가 인민군대 수산사업소처럼 인민군대의 수산열풍을 따라 배우려는 청년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또한 김정은 시대 역점사업에 복무하는 청년의 모습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김정은이 인민생활향상과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관광자원의 목적으로 개장한 평양민속공원과 어획 생산량 증가를 앞둔 수산사업소 및 대규모기간사업이었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사업 등 김정은 시대 역점사업에 복무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공연녹화본에서는 <그림 18>과 <그림 19>처럼 극의 배경이 청년들의 복무 환경이 실제와 유사하게 꾸며져 있다는 점, 또 서사를 통해서 이보다 훨씬 더 경쾌한 면모를 부각하여 형상화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공연에는 영사기를 도입 및 사용하여 이를 통해 실제 공간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매우 휩진한 공간적 배경을 후면에 배치한다.⁴³⁾ 따라서 경희극 <향기>에

42)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82쪽.

서는 영사막을 통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며 이러한 성난 바다에 뛰어 들어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그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여 업무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영상화면을 통해 주인공의 어획 생산량에 대한 충만한 의지를 묘사하기도 한다.⁴⁴⁾ 또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에서는 영화 30도의 얼음물에 들어가 뗏목을 고정하는 청년돌격대의 고된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영상화면으로 보여주는 등, 청년들의 고된 복무 현장이 영상과 무대를 넘나 들며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그림 20>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영사기를 통해 실감나게 묘사됨_경희극 <향기>

<그림 21> 악조건에서도 그물을 해체하는 선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줌_경희극 <향기>

특히 기상악화로 <그림 20>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도 불구하고 <그림 21>처럼 어획에 나서고 마는 강선기의 모습은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사회적 태도가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 즉 기상악화에 그간 바다에 나가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어로전투’ 라는 기치 아래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다에 들어가 그물망을 걷어내는 한 청년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 공연은 그렇듯 목숨을 내걸고 물고기 수확량을 늘리는 것만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깨닫게 되는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향상의 목표를 위하여 오히려 당이 청년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적인 노동의 현장에서 복무

43) 장명철은 경희극 작품에서 영상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간 무대 위에서 창조하기 어려운 장면형상을 창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 분위기를 돌구어 줌으로써 주인공들의 성격과 생활을 보다 감명 깊게 형상할 수 있다고 논한다. ; 장명철, 「영상화면의 효과적인 리용 : 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4호, 2002, 62-63쪽.

44) 김미진은 이것이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경희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로 파악하며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로 이해한다. ; 김미진, 『김정은 시대 북한 경희극 분석』, 『동아연구』 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60쪽.

하길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경희극 세편 모두 공통적으로 일터 내 함께 복무하는 ‘연인’ 사이의 청년들을 그리면서 그들의 ‘결혼 문제’를 다룬다. 이때 그들 모두 결혼과 일 사이에서 고민해야하는 청년의 모습을 다룬다. 즉 경희극 <사랑>은 평양민속공원에 일하는 민속공원 노동부원인 광남과 옥실이, 경희극 <향기>는 어로공 선기와 혜연이, <백두의 청년들>은 백두산영우청년발전소 건설 사업에 복무 중인 이옥철과 정성화, 강순호와 라순희가 각각의 연인 사이로 등장하여 공연 내내 이들 연인들이 결혼이 먼저인지 일이 먼저인지를 따져 묻는 것을 주요 사건의 화두로 던지는 것이다.



<그림 22> 부모의 반대로 개인 <그림 23> 선기와 혜연이 <그림 24> 발전소 건립 작업을
 간의 ‘사랑’이 먼저인지 당의 수산열풍에 동참한다고 결혼을 달성하기 위해 결혼식을
 ‘일’이 먼저인지 기로에 선 미루기로 결심하고 선기의 당에서 올려주겠다고 해도
 옥실과 광남_경희극 <사랑> 누이에게 다리가 다쳐 결혼을 미루고 일에 매진하려는
 늦추겠다고 말하는 연인들의 모습_경희극
 장면_경희극 <향기> <백두의 청년들>

경희극 <사랑>에서는 <그림 22>에서처럼 민속공원 노동부원으로 일하던 옥실과 광남이 평양민속공원 내 각자 맡은 구역에 알맞게 의상을 갈아입고 일을 해야하는데, 옥실은 무당집 무당으로 광남은 민속촌 구룡사의 중으로 배정받아 각자 그렇게 차려 입고 있다가 서로의 부모에게 직업적 오해를 사게 되고, 이로써 부모들의 결혼을 반대하여 둘의 결혼이 파혼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에 옥실은 “사랑이 먼저” 라면서 “일을 버릴 것”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광남은 “사랑을 해도 일을 해도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하자”고 그녀를 설득하고 이후 부모들의 오해를 풀어 다시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희극 <향기>에는 연인인 선기와 혜연이 군대수산과 지방 수산의 차이를 줄이고 자신들이 속한 지방에의 수산열풍에 동참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기 위해 혜연

이의 다리가 다친 상태라고 거짓을 말하며 수산업 복무에 더욱 열중한다.

또 경희극 <백두의 청년들>에서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희생을 통해 발전소 건립’을 하루라도 앞당겨 김정은 지도자에게 보답해야한다는 생각을 지닌 청년들로 인하여 당에서 혼기가 차고도 결혼이 늦어지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의 문제라며 이에 그들을 더 이상 당에서 두고 볼 수 없다고 당 차원에서 결혼을 시켜준다는 제안이 들어오자, 청년들은 오히려 지금은 백두산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이라는 과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 시기 결혼 보다는 한번이라도 더 돌을 나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히려 당을 속여 이별하는 척 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업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는 두 연인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연녹화본에서 고된 복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에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담기며,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결혼보다도 김정은 지도자를 위하여 성과 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권장되기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백두의 청년들>에는 “우리가 10여년 세월을 객지의 흑한 속에서 고생하면서 물론 먹을 것도 그리웠고 잠자리도 그리웠지만 그보다 더 그리운 것은 시멘트 아니었습니까?”라면서 “내리는 눈이 모두 시멘트였으면 좋겠다”며 발전소 건축에 들어갈 시멘트의 도착으로 객지의 흑한 속 고생은 잊고, 전투적 과업에 남은 것은 승리만이라고 낙관하며 기쁨에 울부짖는 한 청년의 대사만 보아도 개인적 생활의 영위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접어둔 채 오로지 당과 지도자를 위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청년상을 보여주어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서사 창작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체제가 이렇듯 서사를 통해 공개할만큼 인정하는 객지의 흑한에서의 고생과 이로부터 먹을 것이 그림고 잠자리가 그리운 청년들에게 객지 생활로부터 쌓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도를 이와 같은 가벼운 웃음과 낙관으로만 점철된 공연녹화물의 서사가 얼마나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반면에 TV드라마는 직설적 표현이 가능한 문학편집물이나 단선적 구조로 비교적 선명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공연녹화물과는 달리 그나마 입체적인 청년 형상을 통해 다소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청년현실의 갈등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 김정은 시대 조선중앙TV 청년 형상 TV드라마 속 주인공의 청년 여부

유형	세부장르	제목	년도		주인공 : 청년여부
TV 드 라 마	텔레비죤극	꿈을 속삭이는 소리	2012	2부	×
	텔레비죤극	기다리는 아버지	2013	2부	×
	텔레비죤극	소년탐구자들	2013	1부	△
	텔레비죤예술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014	1-3부	△
	텔레비죤극	표창	2015	1부	○
	텔레비죤극	귀중히 여기라	2016	1부	○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TV드라마의 내용 중 청년을 형상화하고 있는 드라마는 <꿈을 속삭이는 소리>, <기다리는 아버지>, <소년탐구자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표창>, <귀중히 여기라>가 있다.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청년으로 하는 TV드라마로는 <표창>과 <귀중히 여기라> 두 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2015년-2016년 청년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청년강조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TV드라마에서도 청년이 주인공으로 본격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차지하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 하는 명작을 창작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오늘 청년들은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의 창조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 영화,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대로 담은 진실한 길동무를 기다리고 있다.”⁴⁵⁾라는 당의 지침이 기관지 『조선예술』에 수록된 바 있기도 하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2013년에는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TV드라마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선생님, 그들의 부모 등 보조 인물로 청년들이 형상화된다.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들 TV드라마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가 오히려 보다 밀착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드러난다.⁴⁶⁾ 따라서 이 시기 TV드라마에 형상화된 청년들 서사의 중심부에서 활약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와 아동을 연계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를 뿐이다.

45) 림향, 「청년들은 새 영화를 기다린다」, 『조선예술』 2016년 6월호, 65-66쪽. 2016.

46) 안지영, 「김정은 시기 개별화된 아동·청소년 형상 :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자료』, 2015, 238쪽.



<그림 25> TV드라마 <기다리는 아버지>



<그림 26> 주인공 아동과 달리 보조인물로 그려지는 선생님 (청년)



<그림 27> 주인공 아동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복무하는 주인공의 부모(청년)

먼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했던 2012년-2013년을 보면 <꿈을 속삭이는 소리>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TV드라마를 통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때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선생님, 그들의 부모 등 보조 인물로 청년들이 형상화되는데,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들 TV드라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가 오히려 보다 밀착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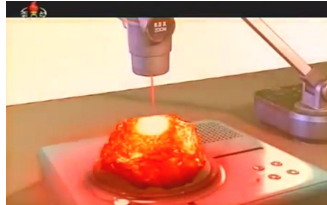
따라서 이 시기 TV드라마에 형상화된 청년들의 경우, 서사의 중심부에서 활약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와 아동을 연계하는 보조인물이나 부수적 인물의 역할에 머무른다. 특히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주인공 아동 장혁의 부모는 지방 건설현장에 복무하느라 주인공을 돌볼 수 없는 처지이다. 오히려 아동은 조부모 보호 아래 살아가며 부모의 빈자리를 선생님이 대신 채우게 된다. 이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당이 부여한 업무에 복무하느라 가정에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북한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물론 이 경우 북한사회의 체제 선전에 따르면 교육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양육자라가 되어 주어야 할텐데, 그보다는 드라마를 통해 보면 이 경우 아동 개인의 재능이 부각되어 서술되어 선생들의 활약이 그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선생을 아동의 조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적인 북한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시점에는 청년이 아직 사회적 주체로 호명되고 있지 않음을 가늠케 한다. 따라서 이 시기 김정은의 지도자 등극으로 인하여 북한사회가 보다 젊고 낙관적인 미래 담론을 주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적으

47) 안지영, 「김정은 시기 개별화된 아동·청소년 형상 :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자료』, 2015, 238쪽.

로 안정을 꾀해야하는 이유로 이때 적극적으로 아동 표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 청년층의 활약은 서사 상으로는 외려 가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기 청년보다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체제 안정화를 위해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아동과 과거 세대 및 기성세대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러한 정치적 구도 사이에 끼인 ‘사이세대’⁴⁸⁾로 청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소년탐구자들>에는 그러한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28> TV드라마 <소년탐 <그림 29> 청년 발명 음과탐지 <그림 30> 음과탐지기 통해 북
구자들> 기의 작동 모습 원된 무명의 항일전사 목소리

북한에서 청년은 14세부터 해당한다. 따라서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16세이므로 그들을 청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청소년과 청년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 TV드라마에 이처럼 청년층이 직접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첫 사례로 확인된다.

<소년탐구자들>의 청년들은 ‘음과 탐지 기술’이라는 상상의 과학 기술을 완성하여 항일혁명의 역사를 소환한다. 따라서 이 서사에서만큼 과학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와의 연결을 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즉 이 서사에서는 특이하게도 과학기술이 항일혁명 역사를 소환하는 실현 불가능한 상상력을 이루는 도구로 그려지는 것이다. 즉 이는 항일혁명의 과거를 체험하지 못한 현실의 청년 세대에게 구세대의 과거 희생적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세대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세대적 괴리감을 이야기적 ‘낭만성’을 통해 내려티

48) 김성경, 「북한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세대”의 혼정적 정체성」, 『통일연구』 19권 1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5) 참고; 황규성, 「북한의 청년 사회적 공간과 주변 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2016, 154쪽.

브적 개연성 없이 억지로 봉합하는 서사적 결절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이와 같은 서사적 결절은 과거 세대와 현실의 청년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이상적 청년 모델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즉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춘 인재이면서 동시에 과거 세대의 혁명적 노고도 절대 잊지 않고 그들을 살뜰히 챙기는 청년이기도 해야 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청년들은 드라마에서처럼 미래와 과거를 매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 이후 제작 및 방영된 <소학교의 운동장들>에서는 이러한 매개자 역할이 한층 더 적극적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김정은 시대 청년세대가 맡은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내는 여성청년이 형상화된다. 사실 <소학교의 운동장>의 주요 인물을 꼽으려면 축구 소년단 아이들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선생인 선향이란 인물도 그들과 함께 주인공의 자리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선향은 서사의 도입부부터 후반부까지 서사를 이끌어어나가는 역할이다. 도입부에는 평양에서 지방으로 자진해서 내려간 선향의 스토리를 담고, 중반부에는 선향이 지방에 적응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적 기술과 함께 마음을 다해 축구를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담기며 후반부에는 축구부를 승리로 이끌어 교육영웅이 되기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다.



<그림 31> TV드라마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그림 32> 보다 진취적인 청년으로 등장하는 선생 선향의 모습



<그림 33> 개인의 지적 능력보다 공적자산이기보다 사적자산이라고 이해하는 용남어머니

따라서 이 드라마의 중심서사는 축구 후비대 양성에 온 힘을 쏟으며, 김정은의 지도를 받들어 산골에서 “몸보다 무거운 바위들을 들어 올리며 맨몸으로 일하는 군당일꾼들의 돌격대 정신”을 본받아 젊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청년의 이야기이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소학교의 축구신동들을 전투적으로 가르치며

느끼는 지치지 않는 당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서 교양적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선향이라는 인물은 김정은 체제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애국 청년의 형상에 부합하며, 이러한 선향의 애국 청년의 면모는 서사를 통해 주입 및 학습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학교의 운동장>에는 소향 이외에도 아이들의 부모들도 청년층에 해당하는데, 이때 “학문 연마가 개인의 축구 재능을 육성하는 일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용남어머니”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지적 능력이 공적 자산으로 이해되기보다 사적 자산으로 이해되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축구를 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럴 바엔 차라리 공부나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용남이의 어머니의 대사에서 재능 육성을 위한 육체적 고생이 결과적으로 특별하고 특출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 및 제도적 차원의 후원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고민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용남어머니는 2부에서 주인공 선향의 행동에 감격하여 아들을 국가를 위한 애국자로 키우겠다고 축구를 승낙하지만 승낙 이전까지의 갈등에서 김정은 시대 청년층에 해당하는 용남이 어머니가 보여준 이와 같은 행동과 대사들은 결국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하는 북한사회의 청년세대에 집단주의 성향을 희석할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⁴⁹⁾



<그림 34> TV드라마 <표창> <그림 35> 사적 욕망을 결심하는 강리창 <그림 36> 강리창 표창을 수여 받는 장면

<표창>에서는 이상적 청년으로 묘사되는 강리창이 서사 전반부에서 사회적 진출을 꿈꾸는 개인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 청년의 사회적 진출 욕망을 비교적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 서사에서는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49)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6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4), 230쪽.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사적 욕망의 출현을 예상토록 한다.

강리창은 삼대 째 수리공인 자신의 삶에서 일탈하여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선임에게 연인이 선물로 준 담배를 오히려 선물로 내주면서 자신을 더 좋은 자리로 추천해달라고 하며 자신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적으로 성과를 많이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적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일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연인의 아버지가 하는 양심선언으로 자신의 업무적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그는 전전긍긍하며 연인에게로 찾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 내 꿈은 끝이다.”라며 서슴지 않고 화를 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그의 사적 욕망의 표출은 서사의 말미에 가서는 그가 양심선언의 주인공이 되고 당의 표창을 받게 되면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진출에 대한 개인적 욕망을 표출하던 주인공 강리창이 갑자기 삼대 째 수리공이 다시 되겠다고 결심을 바꾸어 당을 위해 살아가길 맹세하는 장면에서 확실해진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는 개인의 사적 욕망은 공적 윤리에 쉽사리 포섭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에 배태될지도 모르는 사적 욕망을 최대한 지연하고 막아보려는 정치적 대응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대응은, 가장 최근 제작 및 방영한 <귀중히 여기라>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 서사의 경우 주인공이 분명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지향하는 삶이나 성격이 잘 읽히지 않는다. 주인공은 해군대학 전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청년으로 휴가 기간 가정을 이룰 것을 명받고 휴가를 나오게 된다. 그런 그는 휴가를 나오자마자 해군대 시절 비오는 날 자신에게 ‘전지등(손전등)’을 빌려준 이름 모르는 동무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간다. 그러나 그를 찾아갔을 때 이미 그는 얼마 전 해상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후 휴가 기간에 머물러야 하는 평양으로 이사한 부모의 집을 찾아 가던 중에 그는 젊은 여성과학자에게 길을 묻게 되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길을 가르쳐주던 그녀의 우산을 빌리게 되며 그녀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그는 며칠 후 그녀에게 우산을 돌려주러 갔다가 그녀는 만나지 않고 그저 우산만 전하고 돌아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애에 별로 무심하여 선을 보라는 부모의 권유는 흘려서 듣고 오히려 해상전투에서 전사했다던 성민 동무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성민동무가 살던 동네는 시골 산골로 그곳에 가서 성민 어머니를 만난 그는 성민어머니에게 믿음직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채워주려 하는 듯 다가가 성민 대신 여러 일을 돕는다. 때마침 그 지역 수질 검사를 하러 온 여성과학자 일전에 이미 평양에서 만났던 그 여성과학자와

조우하게 된다. 성민 어머니는 이후 그가 군에서 보낸 청년이 아니라 그저 전지등을 빌려준 인연으로 자신을 찾아와 아들 노릇을 하며 도움을 주려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감동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리고 이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지만 원수님 얘기에 하나가 된다.”며,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들어주신 원수님께 감사”하라며 “사람들이여 인간사랑의 대화원 이 제도를 귀중히 여기라” 라는 멘트와 함께 끝이 난다.



<그림 37> TV드라마 <귀중히 여기라>



<그림 38> 남 주인공



<그림 39> 남녀 주인공의 평양에서의 만남

따라서 이 서사는 “전지등”과 “우산”등 사소한 물품을 빌려주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고, 이토록 사소한 인연에도 인간의 따뜻한 정을 지켜내며 김정은 체제로의 결속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앞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요약한 바, 주인공인 그가 중심 서사를 이끌어나가기 보다는 서사 내에서 오히려 부유하거나 곁도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가정을 이뤄야 하는 당의 지도와 선을 보라는 부모의 조언에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인물이며 또 우산을 빌려준 그녀에게 우산을 직접 돌려주려 가놓고도 얼굴도 안보고 주변인에게 주고 떠나며, 오히려 우연한 기회로 지방에서 그녀와 조우하게 되는 장면에서도 그는 왜 자신이 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지 그녀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의 행동들이 개인적 관계맺음에 있어 그다지 능동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식되며 따라서 그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그에 대한 의지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전지등을 한번 빌려준 동무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하여 그는 휴가기간을 다 소진하면서 그를 찾아 해군부대를 찾아가며 심지어 그가 전사자임을 알게 되면서 얼마 안되는 휴가 기간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방행을 자진하며 그의 빈자리를 애써 채우려 노력하는 데에서 능동적 의지를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서사에서 그는 오로지 당에 헌신하여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작업에 한해서 욕망할 뿐이다. 이로써

이 서사는 개별 주체로서의 최소한의 관계맺음이나 사적 욕망을 지워내고, 오히려 사소한 인연의 이유만으로도 묶일 수 있는 집단주의 사고를 설파하며 결국 체제의 과도한 결속만을 강요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보니 <귀중히 여기라>의 주인공 청년만 보아도 서사 창작 시 청년을 주인공으로 설정할 뿐, 즉 표면상 청년중시사상의 서사화가 행해지는 것이지 청년의 주관적 감성이나 갈등을 지닌 입체적 성격이 묘사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바에만 반응하는 평면적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면적 인물이 김정은 시대의 이상적 청년상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체득하거나 체득 중일 현 재의 김정은 시대 청년들에게 감흥이 있겠는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TV드라마의 청년 형상화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제작 및 방영된 순서대로 살폈다. 우선 이들의 공통적 특성을 찾아보면 첫째, 청년들은 주로 과학 기술을 잘 다루면서 현대적 이미지를 지닌 인물들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IT기기를 교육, 운동, 업무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키는 인물들로 그들의 이러한 능력은 결국 당을 위해 바쳐지는 결국 당에 헌신적인 이상적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 청년의 형상화와 이에 대한 지속적 노출은 그들의 모습을 선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년탐구자들>에 나온 과학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과학도들과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의 소향이 시현하는 컴퓨터 기술을 도입한 축구 교육 <그림 40>의 <표창> 속 핸드폰으로 연애하는 모습 등이 모두 그러한 청년의 현대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림 40> <표창>의 핸드폰 사용하여 연애하는 남녀의 모습
뿐만 아니라 TV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대개 평양 출신으로 등장한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부모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의 선향, <표창>과 <귀중히 여기라>의 주인공 남녀들도 마찬가지로 평양 출신이지만 서사에서 이들 청년들은 자진하여 지방행을 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도시와 지방 사이의 평준화를 지향한다는 북한사회 내부에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평양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현대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적 청년의 형상화를 위하여 그들을 ‘평양에서 온 청년들’로 설정하여 그들을 현대적 이미지를 갖춘 인물로 그려내며 이로써 매력적 인물로 선명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는 청년들이 자진하여 지방행으로 가는 일이 그만큼 현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이상적 청년상의 지속적인 자진 지방행이 이들 서사에 반복적으로 전제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지방행에 당위를 만들고 독려하는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김정은 시대 TV드라마에 나타난 청년들은 결국에는 공적윤리에 포섭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즉 개인의 능력을 공적 자산이 아니라 사적 자산이라고 여기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의 용남 어머니, 사적 욕망을 꿈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표창>의 강리창의 등장은 북한의 TV드라마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적 욕망을 원하는 청년들의 예외적 등장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사 말미에 가면 그들은 ‘공적윤리’에 쉽게 포섭 당하는 인물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 구조의 반복은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청년층에게 공적윤리로의 포섭을 강요해야하는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층에게 변화요인이 유독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문명국 건설을 위한 각종 유통 및 건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등의 북한 내 표면적 변화에 노출된 청년층, 그것이 환경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대로서 심미적 정체성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데다가 또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이자 불법으로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김정은 시대 청년들은 체제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추측 가능하다. 이러한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와 결속력의 약화에 대한 자구책으로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TV드라마를 통해 그들의 사적 욕망을 억제하고 공적윤리로 포섭하기 위한 서사 구성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은 출범 즈음 중동의 ‘재스민 혁명50)’을 통해 청년들이 체제변화의 주력세력으로 나서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가 더 중요

시되었다는 김종수의 발언⁵¹⁾과 이를 연계하여 이러한 서사 구성이 사상 통제의 은유적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또한 사실상 자식을 도시에 두고 지방의 공사 현장에 가서 자신의 복무에만 열중하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모습과 처음부터 이상하리만큼 개인적 관계나 사적욕망이 제거된 상태로 등장하는 <귀중히 여기라>의 남주인공 모습에서 이처럼 이미 공적윤리에 포섭된 상태의 청년들의 형상화를 통해 청년층이 사적 욕망을 꿈꾸지 않으며 갈등과 고민이 없는 인물이며, 그리하여 당의 지시 아니고서는 능동적 행위를 발현하지 않는 인물로서의 미덕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부여하려는 서사도 위의 서사에 담긴 정치적 의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청년 대다수가 사회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어 주변대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며 불평등의 사회적 공간 안에서 북한의 청년들이 사실상 사회주의 선봉대도, 체제변화의 촉진자도 아닌 그러저럭 살아가는 존재로 남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황규성의 논의⁵²⁾와 연계하여 볼 때 굉장히 문제적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청년중시사상의 TV미디어 정치가 매우 표면적으로 확장 및 확대되어 보이나, 서사적 측면에서 볼때는 이상적 청년 형상화를 통해 억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이것이 청년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제4장 결론

본고는 최근 조선중앙TV가 집중 보도 및 서사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과 이에 대한 함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이 조선중앙TV의 청년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방송을 보도 편집물

50) 재스민혁명의 시위 발단은 2010년 12월 남동부 지방도시인 시디 부지드 거리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노점상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하며 따라서 청년층의 분노를 촉발시키며 확대되어 여기에 극심한 생활고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억압통치, 집권층의 부정부패 등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였고 이후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로 확산된 사건을 말한다.

51) 김종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정책연구』 22권, (통일연구원, 2013.) 참고.

52) 황규성, 「북한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6.) 참고

과 서사 창작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보도 편집물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보도의 양적 증가 현상은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전략임을 확인한 것이다. 즉 김정은 시대 청년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 노출을 김정은 정권의 청년 중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로 이해하였다. 둘째, 김정은 시대 청년 관련 보도편집물에 등장한 백두와 청년의 결합의 상징성 부각 등을 통해 주로 특정 가치나 의미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상징정책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정책의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사회 내 가치 중심을 청년층으로 이동하는 사상적 변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청년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는 김정은 시대에서 주도적 청년담론의 형성을 통해 이전 정권과는 다른 김정은 시대만의 특징을 구가하려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년에서 파생되는 젊음의 이미지를 김정은 시대만의 시대적 특징으로 전유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대세습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은 정권에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이전 정권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서술하기보다 오히려 TV미디어를 통해 이전 시대의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부각하고 역사성이나 전통 여부를 더욱 강조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후 서사 창작물에서는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의 형상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문학편집물 분야에서는 노골적으로 당에 헌신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려내며 직설적으로 이를 강조 및 강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공연 녹화본에서는 단선적 서사구조를 통해 비교적 선명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데 이때 개인적 생활의 영위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접어둔 채 오로지 당과 지도자를 위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청년상을 보여주어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라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 서사 창작물의 표현 방식과 달리 보다 은유적 표현이 가능한 TV드라마 부문에서는 이상화된 청년 형상이 보다 중의적이어서 이에 대한 심층적 독해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김정은 시대 TV드라마에서 청년들은 현대적 이미지를 지닌 인물들로 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청년들이 선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현대적 이미지는 과학성과 도시적 인물로의 묘사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였다. 이처럼 현대성을 표상하는 이상적 청년들은 TV드라마 서사 내에서 대개 결과적으로 공적윤리에 포섭되는 인물들로

그러지고 있었고, 본고는 바로 이점이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적 욕망을 지워내고 애써 공적윤리로 포섭하는 내용이 그려지는 이들 서사 구조의 반복은 김정은 정권이 청년층에게 이러한 공적윤리로의 포섭을 강요해야하는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청년들이 문명국 건설을 위한 각종 유통, 건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등의 북한 내 표면적 변화에 노출되었다는 점, 그것이 환경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청년세대로서 심미적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청년층은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이자 불법으로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점 등을 간주하여 김정은 시대 청년들이 체제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추측 가능했을 때, 이로써 청년층의 정체성 변화와 결속력의 약화에 대한 자구책으로 TV드라마를 통해 청년들의 사적 욕망을 억제하고 공적윤리로 포섭하기 위한 서사 구성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이해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보도 편집물과 서사 창작물 분석 및 해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TV미디어 정치를 활용한 청년중시사상 및 청년정책이 표면적으로 확장 및 확대되어 보이는 하나,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이상적 청년 형상화를 통해 억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이것이 청년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보기에 문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TV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 강조 현상이 첫째,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둘째,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포섭하여 노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셋째, 청년 이상화를 주입하여 북한 사회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의 사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김정일 사후 정권 교체 시기부터 지도자의 젊은 나이에서 이미 태생적으로 ‘청년’이 지닌 ‘젊음’의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이에 정권 교체 직후 김정은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전유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젊고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청년 동맹 출신을 당의 핵심 지도부에 임명하며 북한 지도 세력의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추구한 ‘젊음’의 이미지는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정권으로의 이행 시 필요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정책 강조와 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 현상이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교체 직후 시기적으로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명목 및 인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권 교체의 불안정성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문명국 건설’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건설 분야의 성과를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로 생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동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청년’의 호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대량 동원 되어야 하는 노동력의 원천으로의 청년 호명은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양적으로 늘어난 건설 현장에 비례한다고도 보인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는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포섭하여 노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이다.

물론 김정은 시대의 건설 사업 분야의 가시적 성과는 대내외 선전용 이미지의 변화 즉 현상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김정일 시대와 다른 시각적 환경을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고층 건물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및 다양한 문화유통 시설의 등장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공간적 이미지에 노출된 청년들은 문명국으로 가시화된 스펙터클의 표상을 살아가는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삶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보여준 건물의 대형화 다양한 문화향유시설의 등장 등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현재 북한의 청년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IT 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능의 활성화로 인하여 외래문화 불법 유입의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내부 경제 순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장마당의 형성으로 읍지에서 사적 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영역마저 점점 늘어나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이전 세대와 다른 지점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청년들은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력인 동시에 체제 이탈의 불안정한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다소 위험한 존재로 상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급력이 높은 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최근 ‘청년강국’을 내세우며 청년중시사상을 연일 강조하는 전략은 청년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TV에 ‘청년중시사상’을 강조하는 현상과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이상화한 ‘청년’모델의 지속적인 노출은, 김정은 정권이 창조한 세대 전형을 제공하려는 정치적 기획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적 변화에 자연스럽게 새롭게 형성되는 청년 세대의 특징이 대개 사회계층의 분화의 조짐에서 비롯된 사적 욕망의 발현으로 이어지고 김정은 정권을

이를 지연하고 막으면서 이러한 대응이 자신의 정권에 알맞은 세대 전형을 창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를 TV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공식화한다. 이렇듯 조선중앙TV를 통해 강조된 ‘청년중시사상과 청년정책’을 통해 드러난 청년 이상화는 현재 북한의 청년세대에 배태된 사적 욕망을 공적 윤리로 포섭해야겠다는 정치적 강박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청년 세대의 현실 조건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체제 논리에 포섭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TV매체의 ‘보도와 서사’라는 전방위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중시사상의 강조 현상은 청년의 노동력을 추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청년을 체제 이탈의 불안정한 미래를 담보하는 다소 위험한 존재로 상정하며 이로써 그들을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체제 논리에 포섭하려는 목적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지배력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으로 TV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정치는 앞으로 그 효력보다는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사실 미디어가 구현하는 이미지는 김정은 정권이 기획한 신화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 이면의 현실을 함께 비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세 세대인가?』,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8.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2013.
- 김중수, 『북한청년동맹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 김재철, 『한국의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 김철관, 『영상이미지와 문화』, 대전: 배재대학교출판부, 2009.
- 박종철 외,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봉권 외 2인, 『김정은 시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이영권, 『백두혈통의 미래 : 북한 3대세습의 작동원리』, 서울: 이지출판, 2015.
- 전미영 편저, 『김정은 시대의 문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 히라이 히사시, 백계문·이용빈 역, 『김정은 체제 :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박순석 역, 『정치와 프로파간다』,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나. 연구논문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통일연구원, 2010).
- 강민정, 「김정은 체제 북한 TV드라마의 욕망」, 『통일인문학』 60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4.)
- _____,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 『통일인문학』 64호,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5.)
- _____, 「김정은 체제 북한 시에 드러난 '사회주의문명국'의 함의」, 『인문학논총』 47호,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곽채원, 「조선조선민주청년동맹의 결성 배경 연구 : 소련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

- 대북한연구』 18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5.)
- _____, 「조선조선민주청년동맹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2015.
- 김미진, 『김정은 시대 북한 경희극 분석』, 『동아연구』 34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 연구소, 2015).
- 김선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연세대 북한연구원, 2015.)
- 김종수, 「북한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연구」, 『통일정책연구』 22권, (통일연구원, 2013.)
- _____,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평화학연구』 11권,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 _____, 「김정은 시대 '청년동맹」, 『평화학연구』 11권,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 김재철, 『한국의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 김창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67호, (한국동북아학회, 2013.)
- 박준석, 「김정일 시대의 북한 방송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방윤현, 「조선중앙텔레비전보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박정진, 「'유훈'과 변화 사이의 의사 결정 : 북한 김정은 체제 후계 권력구도의 행보와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14).
- 박철진, 「북한 문화정책의 본질과 전망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3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2).
- 서유석·김상범, 「북한 돌격대조직의 구조와 역할전망」, 『북한학보』 41집 1호, (북한 연구소, 2016.)
- 심영섭, 「미디어 생산시간이 미디어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정보학보』 통권4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19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
- 안지영, 「김정은 시기 개별화된 아동·청소년 형상 :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2015 자료』, 2015.
- 윤설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 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 윤진현, 「북한 조선중앙TV의 <사육신>의 인물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통권32호, (한국극예술학회 2010).
- 이희은, 「김정은 시기 조선중앙TV연구 :20시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기우, 「북한의 통치기제로서 선전선동과 『로동신문』의 역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래운, 「김정은 시대 북한 언론매체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주석,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4.).
- 이주철, 「조선중앙TV 연구 : 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조선중앙TV 2000년대 프로그램 변화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 (북한연구학회보, 2011).
- 이희은, 「김정은 시기 조선중앙TV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통일연구원, 2014).
- 전영선,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 조정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 :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4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 황규성, 「북한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6.)

2. 북한문헌

가. 북한원전

- 김일성,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정은, 「신년사 : 주체 105(2016)년 1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 리석규 외, 『방송리론』, 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985.
- 림향, 「청년들은 새 영화를 기다린다」, 『조선예술』 2016년 6월호, 2016.
- 사회과학원주체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 조선청년사, 『청년들의 혁명화를 위하여』, 동경: 조선청년사, 1969.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장명철, 「영사화면의 효과적인 리용 : 선군시대에 창조된 경희극작품들을 놓고」, 『조선예술』 4호, 2002.

나. 언론

- 『조선중앙TV』 2009-2016.
- 『로동신문』 2014년 5월 5일
- 『로동신문』, 2012년 9월 7일
- 『로동신문』 1964년 5월 17일
- 『로동신문』 1990년 5월 17일
- 『로동신문』, 1991년 2월 1일